

파일명 구분	회의록	제 차	
		작성 자	김형범
		회의일자	2015.12.10
회의 장소 및 주제	<p>■회의장소 : 한양대학교</p> <p>■회의주제</p> <p>1.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심포지엄 참여 결과</p> <p>2.“FAR GAME”주제에 대한 회의</p> <p>3.“FAR GAME”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소장 정이삭, 교수 안기현, 교수 신은기, 교수 김승범)</p> <p>4.회의 정리</p>	참 석 자	
		서울시립대	교 수 김성홍
		한양대	교 수 안기현
		인천대	교 수 신은기
		단국대	교 수 김승범
		에이코랩	소 장 정이삭
		서울시립대	정다은
		서울시립대	김형범
내 용	<p>■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심포지엄 참여 결과</p> <p>1.영화계와 연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p> <p>2.남양주에 한국관을 그대로 재현하여 촬영 하였음</p> <p>3.임수정 배우 섭외(무료)</p> <p>4.한국관 철수가 2주정도 되었음</p> <p>5.전시를 할 때 한국관에서 나타나는 조건들을 잘 활용해야 함 (요철이 많은 공간, 글라스 공간 등)</p> <p>■“FAR GAME”주제에 대한 회의</p> <p>1.전시를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p> <p>2.작가를 섭외 할 때(사진,작품) 최대한 비용을 안들이는 방향으로 고려</p> <p>3.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조민석 건축가)에서 많은 작가들이 섭외 가능 했던 이유는 “아카이브”를 전제로 했기 때문</p> <p>4.전시는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함</p> <p>5.베니스에서는 현지 인부들을 다루기도 힘들고 못 하나 구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정 매니저가 필요함</p> <p>6.건축가가 지은 건축 이외에 다른 건축물들은 어떻게 표현, 매치해야 하고 어떤 관점에서 설명, 설득해야 할지 고민</p> <p>7.“FAR GAME”을 대부분 사람들이 MVRDV의 “FAR MAX”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p> <p>8.주제를 바꾸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므로 그대로 진행 했으면 함</p> <p>9“FAR MAX”는 20년이 다 되어가고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전시디자이너 한명을 빨리 섭외 했으면 함. “FAR MAX”와 차별화하는 내용의 디자인을 빨리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디자이너는 우리가 정해야 함</p> <p>■프리젠테이션(소장 정이삭)</p> <p>1.부산에는 물탱크실이 따로 없고 옥상에 따로 물탱크를 올려놓음</p> <p>2.외부를 통해 정식법규가 아닌 공간으로 상층으로 올라가는 방식의 여러 유형들이 있음 (중국에도 유사한 곳이 있음)</p> <p>3.발코니와 테라스 증축에 염두에 둔 일반적 형태가 있는 계획들이 있음. 외부에 요철이 많이 있다는 것은 잉여공간의 생산 가능성을 나타냄</p> <p>4.요철로 디자인을 시작하여 나중에 공간으로 채움</p> <p>5.지붕을 연장하여 불법증축하는 경우 있음. 물탱크실을 활용한 공간 활용 (요즘에는 물탱크실 사용안함)</p> <p>6.건물 사용자입장에서 불법으로 공간을 채우는 것이 이행강제금의 부담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p>		

- 7.불법건축물은 정정하기 전까지는 용도변경이 안됨
- 8.1·2종근생은 이전에는 건축가가 용도변경 하였지만 이제는 건축사 없이 신고 가능
- 9.모든 주택에서 인·허가시 발코니 확장 표기를 하고 신고하면 문제가 없음
- 10.김달린 미술관 비불법으로 잘 활용함(유리등을 이용하면 불법을 피해 갈 수 있음)
- 11.차양시설을 내는 것도 공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보임
- 12.보수를 하면서 공간을 확장 또는 수직으로 공간 확장도 있음
- 13.항공사진으로 불법건축 여부 판단
- 14.민원 신고가 있을 때 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불법 여부 판단
- 15.일조,조망 때문에 옆집에서 민원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 16.시장에서 길을 활용하는 것도 공간 활용으로 보임(상부에 천막 설치)
- 17.명문당(윤보선 생가 맞은편)
- 18.양지 아파트, 1층 상가 이용시 혜택
- 19.계단실 가구화(계단 밑공간 활용 여부)
- 20.작가 구정아,김소라,김아영,김주현 남화연,임홍순,백승우,스털링루비,양혜규,이불,정서영, 정소영,최대진,히라키사와
- 21.면적을 찾기 위한 설계들이 많다고 생각
- 22.중구에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남

■프리젠테이션(교수 안기현)

- 1.불법이 공익에 위배되는가?, 공유의 범위에서 벗어나는가?(KSH)
- 2.공익을 위해 누가 컨트롤 할 것인가? 위태로워 보이는 것은 누가 컨트롤 해야 하는가? 건축가의 책임으로만 맡길 것인가?(SEG)
- 3.법이 넘나들기 쉬운 구조에 건축가가 면적을 차지하는 싸움도 함(KSH)
- 4.위태롭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건축가 할 수 있는 역할 있을까? 다만, 좋은 대안 찾기가 어렵고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음(CIS)
- 5.아라베나 글에서 범위를 넓게 잡고 있음 결국은 건축적 결과물로 사례를 보여달라는 것으로 보임
- 6.가치는 사익인가 공익인가?(KSB)
- 7.사익을 최대 추구하에 공익을 찾는 것이 중요(SEG)

■프리젠테이션(교수 신은기)

- 1.건축을 다른 언어로 해부할 수 있음(계단, 날개, 옥탑 등 요소로 나눔)
- 2.용적률은 결국 필지에서 시작
- 3.강남지역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필로티 주차)
- 4.법에 의해 유형별로 공통점이 나타 날 수 있음
- 5.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중간건축이 근간이 됨(KSH)
- 6.슈퍼블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는 재밌게 해석함(한조직에서 다른조직들이 맞물려 있음)(KSH)

■프리젠테이션(교수 김승범)

- 1.용적률을 지하에서도 볼 수 있음
- 2.용적률을 내세우기만 하면 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
- 3.아라베나의 글은 싸움의 주체가 건축가로 보이는데 용적률에서 싸움의 주체에 대해 고민 필요
- 4.아라베나의 의도에 이해를 바탕으로 주제를 따라가든 비판하든 우리의 입장이 필요함. 아라베나의 글을 무조건 따라가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진짜 “배틀”은 무엇인지 보여주고 보는사

람이 공감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함(KSH)

5.건축 전시에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웹툰 등이 있음

6.용적률 게임의 가치는 무엇인가? 좋은 것인가? 공익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익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불안에 의해서)

7.서울 1000만 인구인데 결과적용적률은 평균적으로 120% 나옴

8.다이어그램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정리할 수 있음

■회의 정리

1.전시 설치 할 때 5월에 가게 됨

2.작업은 2월 28일까지 끝내야 함. 작업공간은 시립대에서 하는 것으로 함

3.연말전에 미팅을 갖기로 함

4.작업을 위해 학교별로 2명씩(학생) 보충하는 것으로 함